

사노피, 부산국제광고제서 '사노피의 소셜 임팩트' 주제 발표

- * 아시아 최대 국제광고제에서 헬스케어 기업 대표해 사회적 책임활동 세션 진행
- * 사노피의 환자 건강 및 긍정적인 사회 영향력 창출 위한 실제적 노력들 소개
- *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 CSR 활동으로 '헬핑핸즈', '초록산타' 소개

대한민국 서울, 2022 년 8 월 26 일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은 제 15 회 부산국제광고제에서 '사노피의 소셜 임팩트'에 대한 주제로 발표 세션을 진행했다.

부산국제광고제는 매년 2만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는 국내 유일의 국제 광고제로 아시아권 최대 규모 광고 축제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며 광고 어워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콘퍼런스는 총 45개 세션으로 'MAD (세상을 바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찾아라)'라는 주제 아래 '전문가 콘퍼런스'와 '오픈 콘퍼런스'로 나눠 진행된다.

사노피는 행사 첫째 날인 25일, '전문가 콘퍼런스' 세 번째 세션에서 사노피의 '소셜 임팩트'와 한국법인 대표 CSR 활동인 '헬핑핸즈'와 '초록산타'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미충족 수요지원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소개했다. 발표는 사노피 한국법인의 이해경 CSR & Communication 이사가 담당했다.

발표에서 헬스케어 기업인 사노피가 환자들의 건강 및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구하는 가치 및 이에 대한 실제적인 노력들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 소셜 임팩트 전략인 ▲CSR 전략 ▲글로벌헬스유니트 ▲'파운데이션 S-더 사노피 컬렉티브'와 함께 관련한 CSR 활동들에 대해 발표했다.

이해경 이사

사노피 코리아 CSR & Communication Lead

"사노피는 세계 선두의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질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노피의 대표 이니셔티브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의 기적을 쫓는다'는 CSR 전략이 R&D부터 제조, 세일즈·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사노피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노피 코리아의 두 가지 대표 CSR 프로그램인 '헬핑핸즈'와 '초록산타'와 같이 환자 및 소외된 이들의 미충족 수요를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 CSR 활동으로 소개된 ‘헬핑핸즈’는 2011 년부터 진행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이다.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노숙인과 주거취약계층(쪽방촌)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산타’는 만성질환·희귀질환·암 환자 및 청소년, 치료 종결자 및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환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4 년 출범 이후 사노피의 대표적인 CSR 프로그램이자, 국내 제약업계의 장수 CSR 활동의 선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